

## 동북 헬프 국내외의 회의 목록

- a. 2012년 9월에 센다이시(仙台市)에서 「일한 기독교인 신앙 회복 성회」를 열어, 한국 기독교 협의회(NCCK)와 후쿠시마현(福島県) 그리스도교 연합회의 책임자를 초대하고, 특히 김 종훈 목사님으로부터 「이제부터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사상 처음인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고, 거기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는 것」이 참가한 모든 자들의 책무로서 확인되었다.
- b. 2012년 9월에 센다이시에서 행하여진 각 종교자의 공동 심포지엄 「원전과 헌법 구조(九條)」의 현지실행 위원으로서,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은 목숨을 위협하고, 「공포와 결핍」을 초래하고, 「평화 가운데에 생존하는 권리」를 위협하는 1 것임을 확인했다.
- c. 2012년 10월에 스카가와시(須賀川市)에서 행하여진 증언 집회 「후쿠시마의 지진 재해를 이야기하는 모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로서, 증언의 중요성과 그 신학적 해석이 불가결한 것을 제언했다. 2.
- d. 2012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진 CCA Consultation on Ecology, Economy and Accountability 에서,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환경과 경제의 문제가 상극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는 주변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며, 그 해결의 열쇠는, 지역과 밀착해 세계와 직결하고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 e. 2012년 12월에 아이즈(会津)에서 행하여진 각 종교자 공동의 「원자력에 관한 종교자 국제 회의」의 현지실행 위원으로서, 현지의 사람들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제 회의가 아니면 안되는 것을 주장하고,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와 핵병기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것을 회의 전체에서 확인했다. 또 특히 장윤재 목사님의 발표에 대하여 응답하고, 방사능 재난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찾아낸 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을 지적했다.
- f. 2013년 3월에 동경에서 행하여진 「신학 국제 심포지엄」에 있어서, R. 마우 목사님 과 나카자와 게이스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神)의(義)론을 과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로부터 꺼내지는 시각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더해서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명을 교회가 띠고 있는 것을 주장했다.
- g. 2013년 5월에 후쿠시마시에서 행하여진 각 종교자 공동의 「후쿠시마 종교자 원탁 회의」에 있어서, 공익 법인 세계 종교자 평화 회의 일본 위원회의 멤버와 후쿠시마에 관련하는 각 종교자 및 피난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면서,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각 종교로부터 발표된 성명 문장을 집약해 검토할 필요를

호소했다.

h. 2013년 6월에 서울에서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준비 모임을 행하고, 「대도시에서의 피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가 체험하고 있는 사항이며,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사고뿐만 아니라 핵전쟁에 불안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증언은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신학적·신앙적인 증거를 21세기의 세계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 일본국헌법전문으로부터 인용.

2 성과를 문자에 나타낸 것이, 『후쿠시마의 그 날 · 그 때를 이야기한다』 생명의 말씀사, 2012년이다.